

독일 조경 건축가 연맹(BDLA) 튀 링겐(Utah)에 있는 응용 과학 대학 에르푸르트(Erfurt)와 URBIO 네트워크의 조경 건축학과 교수 Norbert Müller 박사와 Dr. Rüdiger Kirsten는 지속 가능한 녹색 공간 디자인을 위한 평가도구로 ‘URBIO INDEX’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에서는 ‘2016년 URBIO INDEX’를 국내 도시 내 적용 가능한 녹색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개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5)에서는 지역문화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정책수립, 정책실행, 문화활동,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자원, 문화복지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Korea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14)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로 여가시간 및 활용, 문화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생태문화도시 계획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부터 현재 계획지표로 작성되어지고 있는 생태도시 계획지표의 요소들과 기준이 제시되어왔다.